

철도청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실천 지도용역” 최종 발표



안전협회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11월 15일에는 대전정부종합청사 철도청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실천 지도용역”에 대한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철도청 박철규 차장을 비롯하여 김형박 안전환경실장 등 각 본부장 및 담당과장, 안전협회의 이봉수 국장과 이번 용역 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내용 중 안전컨설팅 기간 내에 시범 실시한 안전활동으로 호응이 좋은 SIOP

기법과 새로운 위험성 평가, 작업별 안전작업메뉴얼 제작 등은 신속한 계획수립을 통해 철도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한다.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관공서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성공리에 마친 안전협회는 향후 철도 동종업종에 대한 재해예방 안전컨설팅 지원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안전협회 “유해·위험 기계·기구 검사 시스템” 발표



안전협회는 지난 11월 8일 자체검사 업무부문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표회를 가졌다. (주)한우테크와 공동으로 금년 3월부터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들어간 검사프로그램은 자체검사 직원들로 하여금 시범 사용을 마치고 이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접수부터 보고서 출력까지 전산화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은 내장된 검사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장착된 FDA를 이용하여 수행되는데, 검사 데이터는 유·무선을 통해 사무실로 전송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무량 감소로 검사업무에 더욱더 집중함으로써 의뢰사업장에 신뢰성 견비와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축적된 자료를 IB화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 선진안전으로 겹경사

안전보건분야 초일류기업 현판
인천 화력발전처 2002. 11. 6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정덕한 처장)는 11월 6일 소내 강당에서 초일류기업 재인증과 함께 무재해 10배 달성에 따른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000년 8월에 안전보건분야 초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바 있는 인천화력발전처는 이번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2004년 8월까지 안전보건분야 초일류기업으로 다시 한번 우뚝서게 되었다. 또한, 무재해의 꿈이라 여기는 10배를 달성함에 따라 안전협회에서 수여하는 무재해 달성탑과 달성기를 받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인증패 수여, 무재해 10배 달성탑 수여,

현판식에 이어 정덕한 처장과 이홍지 회장이 함께 무재해 10배 달성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홍지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무재해 10배를 달성하고, 안전보건분야 초일류기업으로 재인증된 인천화력발전처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협회 미국 ENSR과 공동으로 Questionnaire 작성업무 수행



미국 안전·환경·보건부분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전문업체인 ENSR은 안전협회와 공동으로 Questionnaire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번 업무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ENSR의 Mr. Paul Sola-Sala 씨와 안전협회 안전기술국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고압가스관리법 및 액화석유사업법 등을 대비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전담하기 위한 Questionnaire 작성업무이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산업시설이 낙후된 국가에 우리의 안전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

에서 선진 외국과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공동 추진한 것은 안전협회가 세계로의 안전업무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www.ensr.com 참조)

2002년 안전컨텐츠 경진대회 실시



대덕대학 정공관에서는 지난 11월 8일 “2002년 안전컨텐츠 경진대회”가 열렸다. 안전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예선을 통과한 안전협회의 본선발표자 중 상위 5개 작품과, 대덕대학의 3작품으로 총 8개 작품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다. 안전협회 금상에는 충북 지회 김주훈 대리가 수상하였고, 은상은 강원지회 원치정 과장이 차지하였으며, 학생부문 최우수상에는 장인찬 학생이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2회째로 교육자료의 고급화,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분야의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확보

라는 취지로 실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좋은 작품이 많은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산학이 합동으로 추진되었다는데 대해 의미가 크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향후 더욱 발전된 대회로 이어가기로 했다.

파주시 기업 대표자 안전의식 높아



지난 11월 19일 임진각에서 파주시 기업인 협의회(회장 석용찬, (주)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의 주체로 이준원 파주시장, 이용진 고양세무소장 등 100여명의 기업인 협의회 회원사를 초청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 기업인들이 예전부터 산업안전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를 희망함에 따라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이 강사로 초청된 자리로, 파주시 기업인들의 안전의식이 높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은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포항제철소 「안전관찰 역할연기 경연대회」 개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무재해 제철소 실현과 선진 안전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관찰 역할연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대회는 총 13개 팀이 본선에 나와 치열한 경합을 버텼으나 2선재공장이 제철소장상인 대상을 차지하였다.

금년 상반기에 미국 DuPont의 STOP 기법을 도입한 포항제철소는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번 대회를 열게되었다.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2002년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최우수 관서로 선정

2002년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분야 기관평가에서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상준, 산업안전과장 김순호)가 전국 46개 지방관서 중 최우수 지방관서로 선정되었다.

금년도의 역점사업을 산업재해 감소로 정하고, FSM 대상사업장에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산재다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매일 패트롤 안전점검 등 다각적으로 관리·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재해율은 0.47%P로 전년동기 대비 25.4%P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관계자는 과거의 “안전제일주의”에서 진일보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알려드립니다.

저희 안전기술은 보다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내지 증설과 함께 구독료를 종전 4,000원/부에서 5,000원/부(년간구독료 40,000원에서 50,000원)로 인상합니다.

단,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독신청하신 구독자에게는 종전금액(1부 4,000원, 년 40,000원)을 적용하여 드립니다.